

# 다사다난한 한해 따뜻하게 마무리하세요

12일 정읍시예술회관에서 '문화의 길을 걷다. 동행'  
'아시안 클래식 플레이어즈 오케스트라' 초청

오는 12월 12일 정읍시 예술회관에서는 클래식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아시안 클래식 플레이어즈 오케스트라를 초청하여 송년음악회가 열린다. 음악회에는 인기 가수 정동하와 인순이가 협연하여 음악회의 수준을 한껏 드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읍시(시장 유진섭)가 후원하는 이번 공연은 정상급 연주자를 초청, 격조 높은 공연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의식 함양과 욕구 충족을 위해 마련됐으며, 문화특화도시 조성 사업자로 선정된 사단법인 들레(이사장 안수용)가 기획했다.

'더 나은 공연문화 정착을 위한 음악회, 문화의 길을 걷다. 동행'이라는 주제로 무대에 오르는 이번 음악회는 아나운서 출신인 전문 MC 신영일 씨가 진행을 맡는다.

국내 최고의 시립 오케스트라 출신들로 구성된 '아시안 클래식 플레이어즈'는 오페라 '가면무도회' 왈츠, '피가로의 결혼' 서곡, '카발레리아 투스티카나' 등 주옥같은 명곡의

연주를 통해 감동 있는 선율을 선사하고, 송년을 맞아 '크리스마스 캐럴 메들리'를 준비하여 관객과 함께 하는 공연을 예고했다.

또한 전설적인 밴드 '부활'의 보컬 출신으로 최근 뮤지컬 무대를 넘들며 대중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정동하 씨가 출연하여, 또 다른 장르의 음악을 통해 무대에 생동감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협연자로 나서는 가수 인순이 씨는 올해 데뷔 40주년을 맞은 국민가수로 '친구여, 씨니, 밤이면 밤마다, 배사메 무쵸' 등 다양한 노래를 폭발적인 가창력 등과 함께 선보여 공연장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킬 전망이다.

금 번 공연을 기획한 안수용 이사장은 "최고의 연주자를 초청한 수준 높은 공연을 통해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된 자리다"며 "특히 다사다난한 한해를 따뜻하게 마무리하기 위한 자리니만큼 음악회에 시민들을 무료로 초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는 문화격차 해소와 문화역량강화, 문화발달장조를 사업 목표로 문화특화지역도시 조성사업자로 (사)들레를 선정하여, 활발한 문화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난 29일 임실군민회관에서 제2회 Forever임실음악축제가 성대히 열렸다.

## 문화갈증 축축이 적셔주는 행복한 시간

Forever임실음악축제 성료... 클래식과 실용음악까지 다채

임실군은 29일 임실군민회관에서 '제2회 Forever임실음악축제'가 성대히 열렸다고 알렸다.

(사)한국음악협회 임실지부가 주최하고 임실군이 후원한 이번 행사는 심민 임실군수를 비롯한 군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Forever 임실음악축제는 대중음악뿐만 아니라 군민들이 쉽게 접하기 힘든 클래식과 실용음악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축제에 참여한 모든 군민들에게 잊지 못할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다는 평이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이동성 지부장은

"두 번째로 개최된 Forever음악축제는 임실 주민들과 음악협회 회원들이 하나 되어 아름다운 선율을 즐기며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자리로써 이런 축제를 개최할 수 있게 되어 정말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심민 군수는 "이번 음악축제를 통해 다양한 공연과 함께하는 음악 향연이 군민의 문화갈증을 축축이 적셔주는 행복한 시간이 되고 음악 동호인뿐만 아니라 군민들의 친목과 화합도 다지는 어울림 한마당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진안향교 '달빛공연' 판소리·민요·무용 등 다양한 공연 펼쳐

진안향교(전교 이병기)는 29일 향교 충효관에서 향교유림과 군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달빛여행'이라는 주제로 전통문화공연을 열었다.

이번 공연은 문화재청의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유림과 군민들에게 우리의 전통문화 공연의 즐거움을 알리고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어 판소리, 민요, 무용 등 다양한 문화공연을 펼쳤다.

진안향교는 600년이 넘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자리나는 세대들에게 경료효친 사상을 가르치기 위해 청소년 인성교육 및 일요학교를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에 정신적 버

림목이자,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병기 전교는 "향교 유림과 군민을 모시고 전통문화 공연을 열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도 진안향교는 진안의 변화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향교 군수는 "가을의 끝자락에 다양한 문화공연을 준비해 주신 진안향교 이병기 전교 및 유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오늘 다양한 문화공연이 준비된 만큼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공연을 즐기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이런 문화공연들이 자주 선보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향토문화 심포지엄 성료... "문화의 창조적인 현대화 위해 열정 다할 것"

제1회 향토문화 심포지엄이 지난 28일 원광대학교 승산기념관 제1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심포지엄은 익산문화원과 원광대학교 LINC+사업단이 공동 주최하고,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익산시, 원광대학교가 후원했으며 150여 명의 시민과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문화의 창조적인 현대화를 위한 익산문화원의 역할에 대해 주제 발표 및 종합 토론으

로 진행됐다.

제1주제는 나종우 전북도 문화원연합회장이 '지역문화의 발전을 위한 문화원의 역할'에 대해서, 제2주제는 이정호 원광대학교 지역발전 연구소 연구교수가 '익산문화원의 현황 및 발전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다.

이어서 좌장 김성봉 원광대학교 교수가 진행한 종합토론은 제1주제에 대해 박중대 익산

시 의원과 김형훈 익산시 문화관광과장이, 제2주제에 대해서는 유은미 함해국 대표와 박봉수 시민과사회 대표가 각각 토론에 나섰다.

이재호 익산문화원장은 "심포지엄을 계기로 익산문화원이 지역의 대표문화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은 물론 전통문화를 기본으로 한 문화의 창조적인 현대화를 위해 열정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 정읍시립국악단 신규작품 발표공연 '정읍풍류 천강지곡'

정읍시립국악단(단장 주호중, 이하 시립국악단)의 신규작품 발표공연 '정읍풍류 천강지곡'이 오는 12월 5일 오후 7시 30분에 정읍시 예술회관 공연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공연은 신규작품으로만 구성된 시립국악단의 연말평가 공연으로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5점의 창작공연 작품들이 선보이게 된다. 이번에 공연되는 작품들에 대해서는 관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고 작품성이 인정된 작품은 2019년도에 시립국악단의 다양한 공연에 활용될 예정이다.

공연제목 '정읍풍류 천강지곡(井邑風流 天江之曲)'은 정읍의 풍류가 천개의 강, 즉 세상에 두루 흘러넘치길 기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공연되는 작품은 풍류의 너울(관현악곡), 달하무(무용), 진정한 봄(창작곡), 흥진에 묻힌 분네 정읍풍류 엇더하고(창작곡), 정읍풍류가(창작곡)로 시립국악단의 창작부, 무용부, 연주부 단원 30명이 공연을 펼치게 된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시민들께서 많이 참여하시어 시립국악단에서 준비한 신규작품도 관람하시고, 국악단 발전을 위한 발전적 의견도 제시하는 의미 있고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